

# 아트날라리

## 노는게 제일 좋아~



광주지역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한자리에 만나 볼 수 있는 축제가 펼쳐진다.

2019 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놀 때가 제일 좋아!'가 오는 5일 오후 2-6시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일대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태이움직임연구소가 총괄운영을 맡은 이번 축제는 광주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돼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아트날라리'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문화예술을 즐기는 기 넘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문화예술의 가치와 즐거움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다.

축제에는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동네예술배움터 광주Re'와 '토요문화학교-주말예술배움터' 39개 단체가 참가해 공연(12개), 체험(33개), 전시(14개) 등 59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먼저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광주어린이요율합창단의 '세계민요 독창, 중창, 합창', 봉다리콘텐츠연구회 시니어 밴드의 연주회 '입국봉다리밴드의 첫 경험', 극단 토박이의 뮤지컬 '요즘 애들', 푸른연극마을의 낭독극 '내 인생에 드라마를 펼쳐보이러', 동아리팀 다올의 '댄스 버스킹' 등이 펼쳐진다.

전시 프로그램에는 지역 청년들의 생각과 고민이 담긴 시를 예술품으로 만드는 아이엠(IM)의 체험전시 '생각을 시로, 시를 예술로'와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소개 및 영상, 결과자료 등이 준비되었다.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주제 체험으로는 밥 한 그릇을 점토로 만들고 소쿠리에 담아 세대 간 소통을 이끌어내는 마음놀이터의 '밥 한 그릇에 담긴 마음', 자화상을 직접 그려보는 함께크는나무협동조합의 '자화상 박스', 솔방울 등 자연물로 작품을 만들어보는 메이아이연구소의 '솔방울가족만들기' 등이 마련된다.

이밖에도 행사장 주변에 설치된 32개 부스에서 생활용품 만들기, 요리, 공작, 악기제작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한편 길바닥에 그린 그림으로 경연을 펼치는 '날라리 그림그리기 대회', 책을 읽으며 할 수 있는 '책 읽을 때가 제일 좋아!' 등 프로그램도 만나 볼 수 있다. 전 프로그램 무료.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지난해 '아트날라리' 축제에서 펼쳐진 체험 프로그램 모습.

문화·예술·교육 한자리에  
5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39개 단체 59개 프로그램  
낭독극·공작·그림경연 등



광주지역 문화예술교육단체들이 함께하는 축제 '아트날라리'가 5일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선보인 오케스트라 공연 장면.

### '보헤미안 랩소디 인 블루'

아르스필하모니와 함께하는 영화음악, 오늘 남구문예회관

'아르스필하모니와 함께하는 영화음악-보헤미안 랩소디 인 블루' 공연이 1일 오후 7시 30분 광주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사)선율이 주최하는 이날 공연은 '랩소디'를 주제로 자신의 색깔을 담은 록 그룹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와 조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 두 작품을 비교하며 듣는 콘서트로 기획됐다. 이날은 영화 삽입곡을 팝페라,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선보이고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탭댄스 공연을 펼치는 등 다채로운 콘텐트로 관객을 맞는다.

이날은 박의혁이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한 '보헤미안 랩소디'로 문을 열고, 조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 'The Man I Love'를 연주한다. 거슈윈의 'I Got Rhythm', 영화 '여인의 향기' 삽입곡 'Por Una Cabeza'를 탭댄스와 함께 무대에 올리고, 영화 '아바타 타임' 삽입곡 'Il Mondo',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삽입곡(퀸 대표곡) 메들리 등을 팝페라로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된다.

김지형 지휘자가 지휘·해설을 맡고, 아르스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4인조 팝페라 그룹 '디에스(Dies)', 피아니스트 선수정, 탭댄스 안무가 유범상 등이 출연한다. 선착순 무료. 공연 당일 입석권 40장을 무료 배포한다.



선수정

### '태양왕의 노래'

바이올리니스트 김진·무지카 글로리피카

오늘 오웬기념각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김진과 바로크 앙상블 '무지카 글로리피카'가 1일 오후 8시 오웬기념각에서 공연 '태양왕의 노래-Resonance of Versailles'를 연다.

이날 공연은 17세기-18세기 초 프랑스에서의 바로크 음악을 바로크 바이올린, 비올라 다 캄바 등 당시 시대의 악기로 연주하는 '원전 연주' 공연이다. 이날은 프랑수아 쿠프랭의 '왕궁의 풍세르' 중 '첫 번째 풍세르'와 '여러 나라 사람들' 중 '스페인 조곡', 자크 뒤플리의 '사르느', 마랭 마레의 '인간의 목소리', 게오르그 무팻의 '바이올린 소나타' 등 곡을 무대에 올린다.

광주 출신인 김진은 시하스발트 카위켄을 사사, 벨기에 고음악 콩쿠르, 아마나시 국제 고음악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도치기 고음악상 상 등을 수상했으며 지난 2002년 고음악 연주 단체 '무지카 글로리피카'를 창단했다. 이날은 전현호(리코더), 헤지나 알바네즈(테오르노바, 바르코 기타), 타카코 타나카(비올라 다 캄바), 아렌트 흐로스펠트(첼로)가 출연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전석 3만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진

### 1~2일 'GB토크, 2020광주비엔날레 퍼블릭 프로그램'

내년에 열리는 광주비엔날레의 진행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2020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GB토크, 2020광주비엔날레 퍼블릭 프로그램'이 1일~2일 열린다. 테프네 아야스, 나타샤 진발라 예술감독과 참여작가 9인, 학자 등이 참여해 전시기획 과정에서 오갔던 이야기를 공개하는 이번 행사는 참여작가들이 작업 및 답문에 대한 발표를 하거나 학자와 함께 팀을 이뤄 대답을 진행한다. 또 작가 퍼포먼스와 작가와의 대화도 마련된다. 예술감독은 다양한 주제의 토론과 담론 창출의 장을 마련하고자 참여 작가들의 이야기로 구성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1일 오후 6시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는 예술감독의 2020광주비엔날레 전시방향 공유, 작가들의 발제, 작가와 학자와의 대담이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두 다라들은 자동화된 카메라의 눈을 적용한 움직임이 입력된 기계 학습에 대해 발표하며 존 제라드는 아일랜드 켈트 이교도족 이야기의 등장인물과 연결해 신경망

에 몰입하는 작업에 대해 탐구한다. 또 인 주 첸은 음파의 음역과 지하세계의 샤머니즘적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김실비 작가는 국립광주박물관 김영희 학예연구사와 함께 종교의 형이상학적 측면이 불멸의 관점과 연결되는 지점에 대해 대담을 진행한다. 그밖에 페르난도 팔마 모드리게스, 갈라 포라스-킴 등도 참여한다.

2일에는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등지에서 작가 퍼포먼스와 작가와의 대화가 열린다. 안젤로 플레사스는 디오니시안과 인도 의식을 따른 고대 의식을 바탕으로 한 퍼포먼스(오전 10시)를 용봉동 습지공원에서 진행한다. 또 시간과 흔적을 통해 시대성을 보여주는 사진 작업을 진행해 조현택과 망자와 실종자의 정치적 지점에 대해 관람객과 논의하는 김상돈의 작가와의 대화(오전 11시45분-오후 1시15분 광주비엔날레 제문헌)도 열린다.

작가 퍼포먼스를 제외한 모든 행사는 현장 접수도 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팝페라 그룹 '디에스'

## 신양파크호텔 12월 송년모임 특별 감사이벤트

한 해를 마감하는 귀하의 소중한 모임, 귀하를 위한 특별 혜택을 준비하였습니다.

### 12월 송년모임 혜택 (연회행사시 적용)

- 각 연회장 메뉴 ..... 10% 할인
- 음료·주류 ..... 50% 할인
- 객실 이용권 증정
- 현수막 1ea 무료제공 } ※50명 이상 행사시 적용
- 빔프로젝트 무료제공

###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클럽

특별회원 모집 [개인 (월) ₩300,000원]

- 회원 특전 -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 10% 할인
- 객실 이용시 .....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